



**ACUERDO AMISTOSO DE
AUTORIDADES
COMPETENTES RESPECTO
DE LA INTERPRETACIÓN
DEL ARTÍCULO 25 DEL
CONVENIO ENTR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LA
REPÚBLICA DE COREA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ÓN E IMPEDIR LA
EVASIÓN FISCAL EN
MATERIA DE IMPUESTOS
SOBRE LA RENTA**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한국과 멕시코의 권한 있는 당국은 1994년 10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합의"라 한다)한다. 동 합의는 제25조(상호합의 절차)제3항에 따른다.

협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 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협약 제25조제2항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의 제기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4년6개월 이내에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 경우 도출된 합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세무 신고기한 또는 신고일중 늦은 날로부터 10년(타방체약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보다 장기간)이내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5조제2항에서 "그 이의 제기가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정을 제안하지 않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적시 통지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협약

제25조제2항의 목적상,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조치를 행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이의제기를 적시에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규정은 이 합의의 서명일 이전에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의 일방체약국이 그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 공제 요건의 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치는 달리 증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협약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독립기업원칙의 이행에 대한 이의 제기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합의는 양 권한 있는 당국의 서명 즉시 효력을 갖는다.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 또는 적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성명) 윤수현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

(성명) Arturo Alejandro Pérez Sánchez
멕시코의 권한 있는 당국
국세청